

+ 김철성 · KBS 기술기획팀 송신기획부 부장

방송환경 변화 속에서 엔지니어로 살아남기

방송환경 변화 속에서 방송사들도 생존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기도 한다. 엔지니어들이 올드 미디어와 과거의 업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바삐 조직을 유연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처음 생겨난 것은 일제치하에 있던 1927년, 정동 언덕에 위치한 경성방송국이 870kHz AM으로 라디오 전파를 발사하면서 부터다. 1920년 미국의 KDKA국이 세계 최초의 방송을 시작한지 불과 7년만이고, 헤르츠가 1888년 전자기파의 존재를 증명한지 40년이 지나서다. 처음엔 음성만을 송출할 수 있었던 방송기술이 발전을 거듭해서 1956년에는 흑백TV가 시작되고, 1980년에는 컬러TV로 전환해서 2000년대에는 꿈의 디지털TV로까지 진화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방송환경이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 방송국 내에는 수많은 직종들이 생겨났고, 기술직 내부에서도 영상, 음향, 송출, 중계, NLE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들이 형성됐다. 하지만, 최근 엔지니어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엔지니어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방송사들은 경영여건의 개선을 이유로 인력을 축소하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송신 시스템들이 디지털화·네트워크화 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방송시설들은 독립적인 장비들로 구성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하드웨어적으로만 동작을 했다. 하지만, 요즘 설치되는 방송시설들은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동작을 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시스템의 설치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외부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점점 방송사의 엔지니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젠 장비나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조치 정도만 가능할 뿐 제대로 된 정비는 설치 업체를 불러야만 하는 실정이다. 갈수록 방송국 안에서 엔지니어로 살아가기가 어려워 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방송환경 변화는 엔지니어에게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와 이들이 모여 있는 방송사들 역시 해당되는 사항이다. 방송사들마다 생존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기도 한다. 미래 방송환경 속에서도 엔지니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겨나는 업무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들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인큐베이팅해서 실용화 하는 것은 엔지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올드 미디어와 과거의 업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바빠 조직을 유연하게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이들 업무는 외부의 차지가 될 것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됐던 아날로그TV는 이제 황혼으로 저물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력과 조직, 시스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새 시대에 맞는 엔지니어로 변신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단순히 방송장비를 운용하는 업무에서 탈피해 시스템을 기획·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업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분야별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이 시나리오나 연출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에 의해서도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업무로의 진출과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해 나간다면, 최근의 방송환경 변화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 방송국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